

포르투갈 2선 침투 되치기 나선 신태용호 '측면 3총사'



'짐 쌀 준비나 하시게' 포르투갈 선수들이 한국과의 U-20월드컵 16강전을 하루 앞둔 29일 천안 축구센터에서 밝은 얼굴로 훈련을 하고 있다. 포르투갈은 C조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이란을 극적으로 따돌리고 조 2위로 16강에 올랐다. 천안 | 김진성 기자 marineboy@donga.com

우찬양·이유현·윤종규에 거는 기대

포르투갈, 상대적으로 느린 수비전환 약점 공격 차단 후 기동력 앞세운 빠른 역습 효과

포르투갈은 1무1패 후 이란과의 조별리그 C조 최종전에서 2-1 역전승을 거두고 어렵게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코리아 2017' 16강에 합류했다. 4득점·4실점의 조별리그 기록은 2차레나 이 대회 정상에 밝은 국가치고는 2% 아쉬운 결과다.

그러나 경계할 부분은 상당히 많다. 공격 2선에서의 침투, 특히 좌우 측면에서의 과감한 빌드업이 날카롭다. 중앙수비수 정태욱(아주대)도 "1월 포르투갈 전지훈련에서 친선경기를 치르며 2선 침투가 좋다는 인상을 받았는데, 이번 대회에서도 여전히 그 점이 강하다. 언제 치고 나갈지, 어떻게 빠져나갈지 미리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왼쪽 날개 디오고 콘칼레스(벤페카), 오른쪽 날개 안드레 히베이루(취리히)는 스피드가 좋고, 출중한 개인기를 자랑한다. 좌우 풀백인 디오고 달로트(포르투)와 유리 히베이루(벤페카)의 적극적인 오버래핑과 배후침투 역시 상당히 위협적이다.

그러나 이들에게도 치명적 약점이 있다. 상대의 빠른 역습에 취약하다. 측면 수비수들은 공격 전개 속도에 비해 수비전환이 비교적 늦다. 우리로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한다.

한국은 조별리그 3경기를 치르며 측면에 우찬양(포항 스틸러스), 이유현(전남 드래곤즈), 윤종규(FC서울) 등을 골고루 기용했다. 4-1-4-1과

4-3-3 포메이션을 혼용한 기나와의 1차전에서 우찬양과 이유현이 원포워드 이승우-백승호(이상 FC바르셀로나)의 뒤를 받치고, 3-4-3 포메이션을 쓴 아르헨티나와의 2차전 때는 이유현과 윤종규가 좌우 원어로 나섰다. 잉글랜드와의 3차전에선 3-5-2 포메이션의 측면을 우찬양과 이유현이 맡았다. 우찬양과 윤종규는 올 1월 포르투갈과의 현지 친선경기에 나서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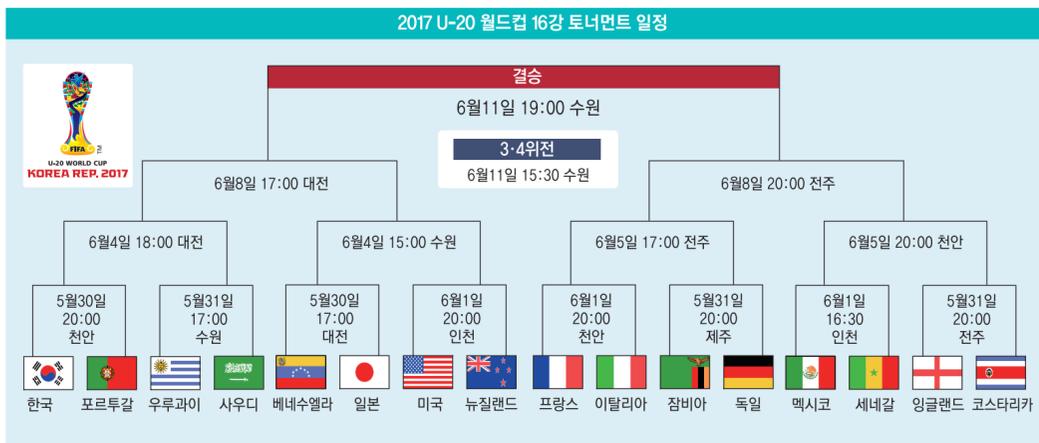
30일 천안종합운동장에서 열릴 포르투갈과의 16강전에서도 큰 틀은 변하지 않을 전망이다. 3명 중 2명의 투입은 기정사실이다. 다만 포백과 쓰리백을 오가는 시스템을 가동할 경우, '포어-리베로' 역할을 할 김승우(연세대)의 출전 여부에 따라 풀백으로 나설지, 측면 미드필더로 출전할지가 결정된다.

측면 3총사 우찬양-이유현-윤종규의 기동력은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다. 잉글랜드전에선 뒷문이 다소 불안정하다보니 측면에서의 활로 개척이 원활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승우-백승호 콤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면 포르투갈 수비진의 부담이 가중돼 측면지원원들의 파괴력 또한 극대화될 수 있다.

더욱이 이들은 모두 '멀티 플레이어'다. 우찬양은 왼쪽 풀백을 메인 포지션으로 삼지만, 상황에 따라선 센터백을 소화할 수 있다. 이유현과 윤종규는 오른쪽을 중심으로 왼쪽에서도 제 몫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이다. 이들 모두 수비에서도 단단한 차단막을 구축할 수 있다.

"포르투갈의 2선 침투, 오버래핑에 대비하겠다"는 신태용 감독의 말에 윤종규는 "상대 공격은 2선에서 주로 시작된다. 적극적으로 커버 플레이를 할 필요가 있다"며 분발을 다짐했다.

천안 |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현장리포트

포르투갈전에 쏠린 눈 결국 취재진 숫자 제한

한국은 30일 오후 8시 천안종합운동장에서 포르투갈과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코리아 2017' 16강전을 벌인다. 현장에서 U-20 태극전사들을 응원하려는 팬들의 열기로 2만5814장의 입장권은 이미 동이 났고, 국내의 취재진의 관심도 뜨겁지만 하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부족한 취재공간이 아쉬움을 사고 있다. 천안종합운동장은 120여명의 기자들을 수용

할 수 있다. 이 중 모니터 설비를 갖춘 데스크톱은 70여석뿐이다. 나머지는 '일반석(움저버)'에 앉아야 한다. 인터뷰룸과 프레스룸은 대회 결승전이 열릴 수원월드컵경기장과 비교해도 작지 않은데, 취재석이 넉넉하지 않아 2017피파20세 월드컵조직위원회는 고민에 빠졌다.

기나, 아르헨티나와의 조별리그 A조 1·2차전이 벌어진 전주월드컵경기장에는 120여명, 잉글랜드전이 펼쳐진 수원월드컵경기장에는 140여명의 취재진이 물렸는데, 이 정도 규모가 찾아온다면 천안은 100% 소화하기 어렵다. 결국 협소한 취재공간 때문에 한국-포르투갈전은 '하이-디맨드(high demand-올림픽 등 국제대회에서 인기가 많은 종목 또는 주목도 높은 경기)에 한해 취재진 숫자를 제한하는 시스템'

경기가 됐다. 조직위는 FIFA와 협의한 끝에 처음으로 SAD(보조비표)를 발급하기로 했다. FIFA 등록 기자들은 매체별 할당량이 정해진 SAD까지 받아야 경기장에 출입할 수 있다. 언어별 6명의 FIFA A컷급 에디터 등을 위한 외신 좌석의 수량이 남으면 국내 기자들에게 추가 제공되지만, 키오프 직전이나 확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대회 관계자는 "외신은 많지 않지만, 일본에선 대규모 기자단이 한국을 찾았다. 상황에 따라 16강 한 일전이 열릴 수도 있었는데, 상대가 포르투갈이라 그나마 다행"이라며 쓴웃음을 지었다.

천안 | 남정현 기자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

갈고뒸는 세트피스...이번엔 골맛 볼까

신태용(47)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코리아 2017' 조별리그(A조)에서 2승1패를 거뒀다. 총 5골을 넣고, 2골을 잃었다. 페널티킥으로 1골, 필드골로 4골을 뽑았다. 실점은 모두 인플레이 상황에서 나왔다.

U-20 월드컵 개막 직전 마지막 모의고사였던 세네갈과의 평가전(14일·2-2 무)에선 2득점 모두 필드골이었으나, 세트피스 상황에서 2골을 허용해 불안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당시 신태용 감독은 "세트피스 공격은 물론이고 수비 상황에서도 감춰야 할 것은 감춰야"고 설명했다. 수비진술 노출을 피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기에 실점에 개의치 않는다는 얘기였다. 이어 대회 개막을 앞두고선 "코너킥과 프리킥 상황에서 각각 십수 가지의 전술을 준비했다. 세트피스에서의 전술 완성도는 90% 이상"이라며 세트피스 득점에 큰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나 조별리그 3경기에서 코너킥 또는 프

리킥으로는 단 1골도 얻지 못했다. 세트피스 상황에서 실점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다행이지만, 신태용 감독의 기대와 달리 세트피스에 의한 득점이 없었던 대목은 아쉽게 느껴졌다.

조별리그 3경기 동안 코너킥 상황을 맞으면 좌우를 분분하고 이승우(FC바르셀로나)가 전담하는 편이었고, 프리킥은 '원발의 감자' 이진현(성균관대)이 주로 담당했다. 16강전 상대 포르투갈은 이란과의 조별리그(C조) 최종전에서 코너킥으로 실점하는 등 세트피스 수비 때 불안한 모습을 종종 노출했던 만큼 이번에는 이승우와 이진현의 발에서 비롯된 세트피스 득점을 노려 볼 만하다.

조별리그와 달리 토너먼트로 펼쳐지는 16강전에선 지면 골장 탈락한다. 세트피스 공격이 효과를 발휘한다면 '외나무다리 혈투'를 한층 유리하게 풀어나갈 수 있다. U-20 대표팀이 그동안 갈고 뒸는 세트피스 훈련이 빛을 보기를 기대해 본다.

김도환 기자 dohoney@donga.com

실외기 설치가 필요없는

21세기 스마트 이동식 냉 난방기, 에어컨 출시!!

냉방, 난방, 공기정화, 제습, 송풍을 하나로!

21세기 이동식 에어컨
특별할인가 : 698,000원
CYP-1013S

- 소비전력 : 1020W
- 냉방능력 : 10,000BTU/h(33m²)
- 제품크기 : 430(W) x 390(D) x 810(H)
- 제품무게 : 34kg
- 제습량 : 1.0L/h

냉방 / 송풍 / 제습 리모컨 / 타이머

21세기 이동식 에어컨
특별할인가 : 798,000원
CYP-100A

- 냉방능력 : 10,000BTU/h(33m²)
- 소비전력 : 1,050W
- 제습량 : 1.0 L/h
- 제품크기 : 46cm x 50cm x 41cm (W x H x D)

냉방 / 자동송풍 / 제습 공기정화 / 리모컨 / 타이머

스마트 이동식 냉난방기
특별할인가 : 898,000원
CY-168H

- 사용전압 : 220V/60Hz
- 제품크기 : 47cm x 33cm x 84cm (W x H x D)
- 제품중량 : 34kg

냉방 / 난방 / 자동송풍 제습 / 리모컨 / 타이머 공기정화

※ 냉풍기가 아닌 에어컨입니다.

전국주문전화 1644-7636

24시간 접수(토요일도) 정성주문 가능! (택배비 고객부담)
 입금계좌: 농협 485049-56-000764 정금순